

# 닷새째 공습... 반군 임시정부 출범

### 카다피 부대, 리비아 주요도시 공격 반군 압박 난민 33만 탈출... 오바마 "지상군 투입 없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리비아에 대한 닷새째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군은 거점 도시인 뵘가지에서 임시정부를 출범시키고, 세속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권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폭발음이 들리면서 밤하늘에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보도했다. 현지 주민들은 여덟차례 폭발음을 들었다고 밝혔으며, 외신기자도 몇 차례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리비아 국영TV는 서방 연합군이

트리폴리 시내 군부대를 향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군의 구성체인 국가위원회는 이날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개혁주의자인 마흐무드 지브릴(59)을 총리로 선임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전했다.

반군의 니산 구리아니 대변인은 "국가위원회는 의회기구여서 우리는 행정을 책임질 집행 기구가 필요하다"며 임시정부를 구성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리비아가 서부의 카다피 체제, 동부의 반군 체제로 동서 분할되는 게 아

니나는 관측에 대해 "우리는 리비아 서쪽과 수도 트리폴리를 해방시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리비아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 인터뷰에서 다국적군 공습(空襲)이 무아마르 카다피의 축출에 실패한다 해도 지상군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을 받고 지상군 투입은 '절대' 불가능하다(out of the question)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리비아 군사 작전의 '출국전략'을 묻자 다국적군 전체의 마무리 전략을 제시하는 대신 미군은 이번 주에 작전 지휘권을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전

날짜 1주일 만에 지지자들 앞에 나타나 결사항전을 선언한 가운데 카다피 부대는 리비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미스라타에서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병력 건물들을 차지한 채 반군을 공격하고 있으며, 남서부 소도시 진탄과 동부의 교통 요충지 야드나비야에서도 반군을 압박했다.

이처럼 서방 다국적군이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리비아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만 공포에 떨며 살던 곳을 떠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지난달 중순 이후 계속된 리비아 유혈사태로 서쪽 튀니지와 동쪽 이집트 등으로 탈출한 사람의 수가 지금까지 33만5600명 이상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이시스 구축함 '서해 류성룡함' 진수**  
현대중공업은 24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함(對艦), 대공(對空), 대전(對潛) 전투능력을 갖춘 '서해 류성룡함'(KDX-III) 진수식을 가졌다. 류성룡함은 현대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우리나라 세 번째 이시스 구축함이다. 길이 165.9m, 폭 21m, 높이 49.6m, 7천600급으로 SPY-1D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 이시스 전투체계를 탑재, 1천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거나 추적하고 그 중 2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최신에 전투함이다. /연합뉴스

## 카터, 빠르면 내달 재방북 추진

### "北 공격직후 대비태세 소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발간

군이 천안함 피격사건 당일 북한의 언어급 잠수정(130t급)의 기지 입·출범 정보를 인지하고도 대잠경계태세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사건 당일 한미연합사령부에 통보되던 때까지 무려 43분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4일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를 통해 작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 직전 우리 군이 북한 잠수정의 공격 징후에 대한 대비태세가 소홀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작년 3월23일부터 30일간 북한 해군 제11전대의 상어급 잠수정, 연어급 잠수정, 예비(공작)모선 등이 식별되지 않았다.

특히 사건 당일에는 제2함대사령부 정보실에서는 북한의 모(母)기지를 떠난 연어급 잠수정 및 예비모선 수척이 미식별됐다는 정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군은 "북한 잠수정(정)의 기지 입·출항 정보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인지하고 미식별 상황에 따른 대잠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백서는 "결과적으로 북한 잠수정의 기습공격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분석 미흡과 이에 따른 대비 태세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코피 아닌 등 동행...김정일 면담 가능성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빠르면 다음달 하순 북한을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는 코피 아닌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과 그로 할렐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등 전직 여성 국가수반 2명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북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카터 전 대통령이 아닌 전 총장 등 국제적인 저명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원로그룹과 함께 방북,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달 정도 좀 뒤에 카터가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상당히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와 카터 전 대통령 측이 직접 이 문제를 핸들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에 역류했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프스의 석방을 위해 지난해 7월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카터 전 대통령 일행

의 방북 문제를 외무성 차원에서 직접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면서 6자회담 재개시 유엔총회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는 등 최근 '유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최종 성사될 경우 북한은 이 기회를 메시자 전달의 통로로 활용할 것이 확실시 된다.

특히 지난해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했던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 방북시에는 김정일 면담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 대북전단 살포

### 주민저지로 첫 무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조준사격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도 철원군에서 비공개로 전단을 뿌리려던 단체가 반대하는 주민들과 충돌해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 이민국 단장 일행이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군 모처에서 비공개로 전단을 뿌리려던 주민 10여명이 현장으로 불려와 거칠게 항의해 소동이 일었다.

이 단장 일행은 전단 살포를 계속하려 했지만 주민들과 충돌로 중단됐으며, 이 단장은 이후 철원군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배라를 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북 핵두산화산 민간협의 29일

### 경의선 출입사무소

핵두산화산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 민간 전문가 협회가 오는 29일 우 리 측 지역인 경기도 문산 경의선 남 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24일 "북측이 핵두산화 산활동과 관련한 우리 측 수경제에 동의한다는 지진국장 명의의 통지문 을 우리 기상청장 앞으로 보내 보내 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판문점 적십자회담을 통해 보내온 통지문에서 화산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해 대표 3명, 수행원 2 명 등을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화산연구소 는 민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우리 측 민간 전문가 들 가운데 5명 안팎의 대표단을 선정 하고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앞서 지난 17일 핵두산화 산 공동연구와 현지답사, 학술토론회 등 협력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기 위 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통지문을 보내 왔다. /연합뉴스

## "원전 30km 밖 주민도 방사능 피해"

### 日 원자력안전위 발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냉각 기능 회복을 위한 작업이 24일 아침 재개된 가운데 일본 정부 기구가 후쿠시마(福島) 원전으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도 방사성 물질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 결과를 내놓았다.

24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마다라에 하루키 전 도쿄대 교수)는 23일 '긴급 시 신속

방사능 영향 예측'(SPEEDI) 시스템을 이용해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방사성 물질 확산 범위와 주민의 노출량 등을 계산한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방사성 물질의 확산 범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라면 12일 후에는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라도 방사성 물질의 방사선 요오드 노출량이 100밀리시버트를 웃돌 수 있다고 예측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제1원전 북

서쪽에 있는 가와마타초는 30km 범위의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갑상선 내부의 방사성 요오드 노출량이 100밀리시버트를 넘을 공산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이날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3호기에서 복구 작업을 하던 작업 인력 3명이 방사선에 노출됐고,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노출량은 170~180mSv(밀리시버트)였다. /연합뉴스

## 식약청, 日 4개현 식품 '유통보류'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식품에 대해 유통을 보류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보류란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별도의 방사선 검사 없이도 유통을 잠정 보류시킬 수 있는 조치로, 검토되는 생산지는 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

현 등 4곳이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전달(현지시간)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야채와 유제품에 대해 자국 내 각 주가 별도의 방사선 검사 없이도 잠정적으로 유통을 보류시킬 수 있도록 조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비람 방향이 바뀌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공기 중에 누출

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이르더라도, 피폭량은 무시할 정도로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일본 원전사고 국내 방사선 영향 긴급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3개 호기에서 방출된 방사선량은 체르노빌 사고 때보다 훨씬 적다"며 "설령 풍향이 변해 우리나라를 향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피폭 방사선량 수치는 연간 0.1mSv보다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요법

###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 OK!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 사이에서 대류현상이 일어나 질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햇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 하루 200~250명씩



무려 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형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않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 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특 제 10-096707 호 발명명칭 :세라미 전기발열체 및그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햇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 한의원, 산후조리원, 복지원, 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햇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 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을 방사되는 B.C.P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제품과 달리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햇 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속병,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케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담물만 100원, 배송비 5,000원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오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원치, /정력이 되살아 난다 /불임이 치유된다 /기미가 사라진다 /속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무릎이 없어진다 /치질이 치료된다 /탈모가 치료된다 /류마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